

미니테스트 제 16 회

문 1.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019행언가-23

유교는 그 근본 정신과 행위 규범으로 구분될 수 있다. 행위 규범으로서의 유교를 ‘예교(禮敎)’라고 부른다. 이러한 의미로 보면 예교는 유교의 일부분이었지만,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유교 자체라고 할 수도 있다. 유교 신봉자들에게 예교는 유교적 원리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었고, 예교를 통해 유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생활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유교적 가치는 추상적 원리가 아니라 구체적 규율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유교와 예교는 원리적으로는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유교의 근본 정신을 그대로 ‘유교’라고 일컫고, 유교의 행위 규범은 ‘예교’라고 일컫기로 한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예교와 법(法)이 구분되었다. 법이 강제적이며 외재적 규율이라면, 예교는 자발적이고 내면적인 규율이다. ‘명교(名敎)’와 ‘강상(綱常)’은 예교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둘 다 예교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명교는 말 그대로 ‘이름의 가르침’이란 뜻으로, 이름이나 신분에 걸맞도록 행동하라는 규범이었다. 강상은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함께 일컫는 말로, 예교의 가르침 중 최고의 준칙이었다. 삼강은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부부 등 신분, 성별에 따른 우열을 규정한 것이었다. 오상은 ‘인·의·예·지·신’이라는 유학자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었다. 오상이 유교적 가치의 나열이라고 한다면, 명교와 삼강은 현실적 이름, 신분, 성별에 따른 행위 규범이었다. 이 때문에 근대 중국 지식인들의 유교 비판은 신분 질서를 옹호하는 의미가 내포된 예교 규칙인 명교와 삼강에 집중되었다. 이름이나 신분, 성별에 따른 우열은 분명 평등과 민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교와 예교를 분리시켰던 사람들은 Kang Youwei (康有爲)를 비롯한 변법유신론자들이었다. 이들은 중국의 정치 제도를 변경시켜서 입헌군주국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 질서를 핵심적으로 구성하고 있던 예교를 해체하는 작업이 우선이었다. Kang Youwei는 유교 자체를 공격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그는 공자의 원래 생각을 중심으로 유교를 재편하기 위해 예교가 공자의 원래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라 Kang Youwei에게 유교와 예교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되었다.

- ① 유교와 예교를 분리하여 이해했던 사람들은 공자 정신을 비판했다.
- ② 삼강은 신분과 성별에 따른 우열을 옹호하는 강제적이고 외재적인 규율이었다.
- ③ 전통적인 유교 신봉자들은 법을 준수하는 생활 속에서 유교적 가치를 체험했다.
- ④ 중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유교의 행위 규범에는 민주주의 이념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다.
- ⑤ 명교는 유교적 근본 정신을 담은 규율이었기 때문에 근대의 예교 해체 과정에서 핵심적 가치로 재발견되었다.

문 1.

문제 풀이 시간

:

문제 난이도

☆☆☆☆☆

문제 인지

발문이나 제시된 자료 및 지문 등에서 핵심 키워드를 표시해보세요.

조건 이해

표시한 핵심 키워드 간의 관계를 정리해보세요.

이론 탐색

문제 푸는 데 필요한 이론 및 해당 이론의 내용을 간략히 적어보세요.

조건 적용

제시된 자료나 조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근거를 찾아보세요.

정답 도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문 2. 다음 글의 내용을 적용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칠언모-20

- 연역논증은 전제를 통해 결론이 참이라는 사실을 100% 보장하려는 논증인데, 이 가운데 결론의 참을 100% 보장하는 논증을 ‘타당한 논증’이라 한다. 반면 귀납논증은 전제를 통해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논증이다. 귀납논증 중에는 뒷받침하는 정도가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다. 귀납논증은 형식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중 우리가 자주 쓰는 귀납논증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보편적 일반화: 유형 I에 속하는 n개의 개체를 조사해 보니 이들 모두에서 속성 P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유형 I에 속하는 모든 개체들은 속성 P를 가질 것이다.
 - 통계적 일반화: 유형 I에 속하는 n개의 개체를 조사해 보니 이들 가운데 m개에서 속성 P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유형 I에 속하는 모든 개체 중 m/n이 속성 P를 가질 것이다. 단, m/n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 통계적 삼단논법: 유형 I에 속하는 개체 중 m/n에서 속성 P를 발견하였다. 개체 α는 유형 I에 속한다. 따라서 개체 α는 속성 P를 가질 것이다. 단, m/n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 유비추론: 유형 I에 속하는 개체 α가 속성 P₁, P₂, P₃을 갖고, 유형 II에 속하는 개체 β도 똑같이 속성 P₁, P₂, P₃을 갖는다. 개체 α가 속성 P₄를 가진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개체 β는 속성 P₄를 가질 것이다.
- ① ‘우리나라 공무원 중 여행과 음악을 모두 좋아하는 이들의 비율은 전체의 80%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무원 중 여행을 좋아하는 이들의 비율은 전체의 80%를 넘지 않을 것이다.’는 타당한 논증으로 분류된다.
- ②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중 100명을 조사해 보니 이들은 업무의 70% 이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들은 업무의 70% 이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는 보편적 일반화로 분류된다.
- ③ ‘우리나라 공무원 중 30%가 운동을 좋아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20대 공무원 중 30%는 운동을 좋아할 것이다.’는 통계적 일반화로 분류된다.
- ④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의 95%가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 공무원 갑은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갑은 해외연수를 다녀왔을 것이다.’는 통계적 삼단논법으로 분류된다.
- ⑤ ‘임신과 출산으로 태어난 을과 그를 복제하여 만든 병은 유전자와 신경 구조가 똑같다. 따라서 을과 병은 둘 다 80세 이상 살 것이다.’는 유비추론으로 분류된다.

문 2.

문제 풀이 시간 : 문제 난이도 ☆☆☆☆☆

문제 인지

발문이나 제시된 자료 및 지문 등에서 핵심 키워드를 표시해보세요.

조건 이해

표시한 핵심 키워드 간의 관계를 정리해보세요.

이론 탐색

문제 푸는 데 필요한 이론 및 해당 이론의 내용을 간략히 적어보세요.

조건 적용

제시된 자료나 조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근거를 찾아보세요.

정답 도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문 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2019행언가-25

1950년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부터 1969년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까지는 투표용지상의 기호가 후보자들의 추천으로 배정되는 A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때에는 투표용지에 오늘날과 같은 ‘1, 2, 3’ 등의 아라비아 숫자 대신 ‘I, II, III’ 등의 로마자 숫자를 사용하였다. 다만 1963년 제3공화국의 출범 후에는 ‘선거구별 추천제’가 ‘전국 통일 추천제’로 변경되었다. 즉, 선거구별로 후보자 기호를 추천하던 것을 정당별로 추천하는 제도로 바꾸어, 동일 정당의 후보자들이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동일한 기호를 배정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1969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순으로 ‘1, 2, 3’ 등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호를 배정하는 B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현재와 같이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투표용지 관련 제도가 처음 선을 보인 것이다. 다만, 당시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 순위’라는 기준은 2개의 정당에게만 적용되었다. 원내 의석이 3순위 이하인 기타 정당의 후보자에게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해 순서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순서 부여는 의석수 상위 2개 정당 소속 후보자와 나머지 후보자를 차별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었다.

1981년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다시 추천을 통해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결정하는 C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때 순위 결정은 전국 통일 추천제가 아닌 선거구별 추천제를 따랐다. 하지만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무소속 후보자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앞 번호를 배정받았다. 이 방식에는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를 차별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의 순으로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결정하는 D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게재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순(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순)으로 정하고, 현재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결정한다.

- ① A 방식에서 ‘가’씨 성을 가진 후보자는 ‘I’로 표기된 기호를 배정받는다.
- ② B 방식에서 원내 의석수가 2순위인 정당의 후보자라 하더라도 정당 명칭에 따라 기호 ‘1’을 배정받을 수 있다.
- ③ C 방식에서 원내 의석수가 3순위인 정당의 후보자들은 동일한 기호를 배정받는다.
- ④ B 방식과 D 방식에서 원내 의석수가 4순위인 정당의 후보자가 배정받는 기호는 동일하다.
- ⑤ C 방식과 D 방식에서 원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는 무소속 후보자에 비해 앞 번호 기호를 배정받는다.

문 3.

문제 풀이 시간 : 문제 난이도 ☆☆☆☆☆

문제 인지

발문이나 제시된 자료 및 지문 등에서 핵심 키워드를 표시해보세요.

조건 이해

표시한 핵심 키워드 간의 관계를 정리해보세요.

이론 탐색

문제 푸는 데 필요한 이론 및 해당 이론의 내용을 간략히 적어보세요.

조건 적용

제시된 자료나 조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근거를 찾아보세요.

정답 도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문 4. 다음 글의 문맥에 맞지 않는 곳을 ㉠ ~ ㉥에서 찾아 수정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행언가-31

‘단일환자방식’은 숫자가 아닌 문자를 암호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는 문장에 사용된 문자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대일 대응으로 재배열하여 문장을 암호화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이 방법에 따라 영어 문장 ‘I LOVE YOU’를 암호화하여 암호문으로 만든다고 해보자. 철수는 먼저 알파벳을 일대일 대응으로 재배열하는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I LOVE YOU’를 ‘Q RPDA LPX’와 같이 암호화하게 될 것이다. 이때 철수가 사용한 규칙에는 ㉠ ‘I를 Q로 변경한다’, ‘L을 R로 변경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우리가 단일환자방식에 따라 암호화한 영어 문장을 접한다고 해보자. 그 암호문을 어떻게 해독할 수 있을까? ㉡ 우리가 그 암호문에 단일환자방식의 암호화 규칙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알파벳의 사용 빈도를 파악하여 일대일 대응의 암호화 규칙을 추론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통계 자료를 통해 영어에서 사용되는 알파벳의 사용 빈도를 조사해 보니 E가 12.51%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 빈도는 T, A, O, I, N, S, R, H의 순서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자. ㉢ 물론 이러한 통계 자료를 확보했다고 해도 암호문이 한두 개 밖에 없다면 암호화 규칙을 추론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암호문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제 누군가가 어떤 영자 신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장을 단일환자방식의 암호화 규칙 a에 따라 암호문들로 만들었다고 해보자. 그 신문 전체에 사용된 알파벳 수는 충분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암호문들에 나타난 알파벳 빈도의 순서에 근거하여 규칙 a가 무엇인지 추론할 수 있다. ㉣ 만일 규칙 a가 앞서 예로 든 철수가 사용한 규칙과 동일하다면, 암호문들에 가장 많이 사용된 알파벳은 E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런데 조사 결과 암호문들에는 영어 알파벳 26자가 모두 사용되었는데 그중 W가 25.021자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후의 빈도는 P, F, C, H, Q, T, N의 순서라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는 철수가 정한 규칙은 규칙 a가 아니라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규칙 a에 대해 추론하면서 암호문들을 해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암호문 ‘H FPW HP’는 ‘I ATE IT’를 암호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 ㉠ ㉠을 “Q를 I로 변경한다”, “R을 L로 변경한다”로 수정한다.
- ㉡ ㉡을 ‘우리가 그 암호문에 단일환자방식의 암호화 규칙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해도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로 수정한다.
- ㉢ ㉢을 ‘이러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암호화 규칙을 추론할 수 있게 될 것이다’로 수정한다.
- ㉣ ㉣을 ‘만일 규칙 a가 앞서 철수가 사용한 규칙과 동일하다면, 암호문들에 가장 많이 사용된 알파벳은 A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로 수정한다.
- ㉤ ㉤을 ‘암호문 ‘I ATE IT’는 ‘H FPW HP’를 암호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로 수정한다.

문 4.

문제 풀이 시간 : 문제 난이도 ☆☆☆☆☆

문제 인지

발문이나 제시된 자료 및 지문 등에서 핵심 키워드를 표시해보세요.

조건 이해

표시한 핵심 키워드 간의 관계를 정리해보세요.

이론 탐색

문제 푸는 데 필요한 이론 및 해당 이론의 내용을 간략히 적어보세요.

조건 적용

제시된 자료나 조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근거를 찾아보세요.

정답 도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문 5. 다음 <표>는 A 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6개 식품 섭취율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행자나-36**

<표> A 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6개 식품 섭취율
(단위: %)

식품	섭취 주기	초등학교			중학교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라면	주 1회 이상	77.6	71.8	74.7	89.0	89.0	89.0
탄산음료	주 1회 이상	76.6	71.6	74.1	86.0	79.5	82.1
햄버거	주 1회 이상	64.4	58.2	61.3	73.5	70.5	71.7
우유	매일	56.7	50.9	53.8	36.0	27.5	30.9
과일	매일	36.1	38.9	37.5	28.0	30.0	29.2
채소	매일	30.4	33.2	31.8	28.5	29.0	28.8

※ 1) 섭취율(%) = $\frac{\text{섭취한다고 응답한 학생 수}}{\text{응답 학생 수}} \times 100$

2) 초등학생, 중학생 각각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전체 조사 대상자는 6개 식품에 대해 모두 응답하였음.

- ① 라면을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중학교 남학생 수와 중학교 여학생의 수는 같다.
- ②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중학교 남학생 수는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중학교 남학생 수보다 적다.
- ③ 우유를 매일 섭취하는 중학교 여학생 수는 275명이다.
- ④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초등학교 남학생 중 햄버거를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학생 수는 4명 이하이다.
- ⑤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여학생 수는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많다.

문 5.

문제 풀이 시간 : 문제 난이도 ☆☆☆☆☆

문제 인지

발문이나 제시된 자료 및 지문 등에서 핵심 키워드를 표시해보세요.

조건 이해

표시한 핵심 키워드 간의 관계를 정리해보세요.

이론 탐색

문제 푸는 데 필요한 이론 및 해당 이론의 내용을 간략히 적어보세요.

조건 적용

제시된 자료나 조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근거를 찾아보세요.

정답 도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문 6. 다음 <표>는 2016년 경기도 10개 시의 문화유산 보유건수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행자가-01**

<표> 경기도 10개 시의 유형별 문화유산 보유건수 현황
(단위: 건)

유형 시	국가 지정 문화재	지방 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록 문화재	합
용인시	64	36	16	4	120
여주시	24	32	11	3	70
고양시	16	35	11	7	69
안성시	13	42	13	0	68
남양주시	18	34	11	4	67
파주시	14	28	9	12	63
성남시	36	17	3	3	59
화성시	14	26	9	0	49
수원시	14	24	8	2	48
양주시	11	19	9	0	39
전체	224	293	100	35	()

- ※ 문화유산은 국가 지정 문화재, 지방 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록 문화재로만 구성됨.
- ① ‘등록 문화재’를 보유한 시는 6개이다.
 - ② 유형별 전체 보유건수가 가장 많은 문화유산은 ‘국가 지정 문화재’이다.
 - ③ 파주시 문화유산 보유건수 합은 전체 문화유산 보유건수 합의 10 % 이하이다.
 - ④ ‘문화재 자료’ 보유건수가 가장 많은 시는 안성시다.
 - ⑤ ‘국가 지정 문화재’의 시별 보유건수 순위는 ‘문화재 자료’와 동일하다.

문 6.

문제 풀이 시간 : 문제 난이도 ☆☆☆☆☆

문제 인지

발문이나 제시된 자료 및 지문 등에서 핵심 키워드를 표시해보세요.

조건 이해

표시한 핵심 키워드 간의 관계를 정리해보세요.

이론 탐색

문제 푸는 데 필요한 이론 및 해당 이론의 내용을 간략히 적어보세요.

조건 적용

제시된 자료나 조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근거를 찾아보세요.

정답 도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문 7. 다음 <보고서>와 <표>는 ‘갑’국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과 세대유형별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9행사가-37

-<보고서>

‘갑’국 정부는 심화되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2017년 8월 2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부동산 대책에 의해 투기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때 구매 시점부터 적용되는 세대 유형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2017년 8월 2일부터 <표 1>과 같이 변경 적용되며, 2018년 4월 1일부터는 DTI 산출 방식이 변경 적용된다.

〈표 1〉 세대유형별 LTV, DTI 변경 내역

(단위: %)

구분 세대유형	LTV		DTI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서민 실수요 세대	70	50	60	50
주택담보대출 미보유 세대	60	40	50	40
주택담보대출 보유 세대	50	30	40	30

※ 1)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은 LTV에 따른 최대금액과 DTI에 따른 최대금액 중 작은 금액임.

$$2) \text{ LTV}(\%) = \frac{\text{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text{주택공시가격}} \times 100$$

3) 2018년 3월 31일까지의 DTI 산출방식

$$DTI(\%) = \frac{\left(\begin{array}{c} \text{신규 주택담보대출} \\ \text{최대금액의 연 원리금 상환액} \end{array} + \begin{array}{c} \text{기타 대출} \\ \text{연 이자 상환액} \end{array} \right)}{\text{연간소득}} \times 100$$

4) 2018년 4월 1일부터의 DTI 산출방식

$$DTI(\%) = \frac{\left(\frac{\text{신규 주택담보대출}}{\text{최대금액의 연 원리금 상환액}} + \frac{\text{기 주택담보대출}}{\text{연 원리금 상환액}} + \frac{\text{기타 대출}}{\text{연 이자 상환액}} \right)}{\text{연가소득}} \times 100$$

〈표 2〉 A ~ C 세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액산출 근거

(단위: 만 원)

세대	세대유형	기 주택담보 대출 연 원리금 상환액	기타 대출 연 이자 상환액	연간소득
A	서민 실수요 세대	0	500	3,000
B	주택담보대출 미보유 세대	0	0	6,000
C	주택담보대출 보유 세대	1,200	100	10,000

※ 1)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연 원리금 상환액은 신규 주택
담보대출 최대금액의 10%임.

2) 기 주택담보대출 연 원리금 상환액, 기타 대출 연 이자상환액,
연간소득은 변동 없음.

-〈보기〉

7. 투기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2017년 10월에 구매하는 A 세대가 구매 시점에 적용받는 신규 주택 담보대출 최대금액은 2억 원이다.

나. 투기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2017년 10월에 구매하는 B 세대가 2017년 6월에 구매할 때와 비교하여 구매 시점에 적용받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감소폭은 1억 원 미만이다.

ㄷ. 투기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구매하는 C 세대가 2018년 10월 구매 시점에 적용받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은 2017년 10월 구매 시점에 적용받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보다 작다.

- ① \neg
② \perp
③ \neg, E
④ \perp, E
⑤ \neg, \perp, E

7.

문제 풀이 시간

-
-

문제 난이도

☆☆☆☆☆

조건 이해

표시한 핵심 키워드 간의 관계를 정리해보세요.

조건 적용

제시된 자료나 조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근거를 찾아보세요.

정답 도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2020칠상모-15

- 甲은 인사교류를 통해 ○○기관에서 타 기관으로 전출하고자 한다. 인사교류란 동일 직급간 신청자끼리 1:1로 교류하는 제도로서, 각 신청자가 속한 두 기관의 교류 승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기관별로 교류를 승인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기관: 신청자간 현직급임용년월은 3년 이상 차이나지 않고, 연령은 7세 이상 차이나지 않는 경우
 - 기관: 신청자간 최초임용년월은 5년 이상 차이나지 않고, 연령은 3세 이상 차이나지 않는 경우
 - △△기관: 신청자간 최초임용년월은 2년 이상 차이나지 않고, 연령은 5세 이상 차이나지 않는 경우
- 甲(32세)의 최초임용년월과 현직급임용년월은 2015년 9월로 동일하다.
- 甲과 동일 직급인 인사교류 신청자(A ~ E)의 인사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신청자	연령 (세)	현 소속 기관	최초임용년월	현직급임용년월
A	30	□□	2016년 5월	2019년 5월
B	37	□□	2009년 12월	2017년 3월
C	32	□□	2015년 12월	2015년 12월
D	31	△△	2014년 1월	2014년 1월
E	35	△△	2017년 10월	2017년 10월

- ① A, B

② B, E

③ C, D

④ A, B, D

⑤ C, D, E

문 8.

문제 풀이 시간 : 문제 난이도 ☆☆☆☆☆

문제 인지

발문이나 제시된 자료 및 지문 등에서 핵심 키워드를 표시해보세요.

조건 이해

표시한 핵심 키워드 간의 관계를 정리해보세요.

이론 탐색

문제 푸는 데 필요한 이론 및 해당 이론의 내용을 간략히 적어보세요.

조건 적용

제시된 자료나 조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근거를 찾아보세요.

정답 도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문 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모두 B안에 투표한 주민 수의 최솟값은?

2020행상나-10

○○마을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였다. 주민들에게 사업안 A, B, C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1차 투표를 한 후, 주민들끼리 토론을 거쳐 2차 투표로 최종안을 결정하였다. 1차와 2차 투표 모두 투표율은 100%였고, 무효표는 없었다.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1차 투표	2차 투표
A안	30명	()명
B안	50명	()명
C안	20명	35명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모두 A안에 투표한 주민은 20명이었고, 2차 투표에서만 A안에 투표한 주민은 5명이었다.

- ① 10
- ② 15
- ③ 20
- ④ 25
- ⑤ 30

문 9.

문제 풀이 시간 : 문제 난이도 ☆☆☆☆☆

문제 인지

발문이나 제시된 자료 및 지문 등에서 핵심 키워드를 표시해보세요.

조건 이해

표시한 핵심 키워드 간의 관계를 정리해보세요.

이론 탐색

문제 푸는 데 필요한 이론 및 해당 이론의 내용을 간략히 적어보세요.

조건 적용

제시된 자료나 조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근거를 찾아보세요.

정답 도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문 10.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칠상모-22

甲국에서는 4개 기관(A ~ D)에 대해 전기, 후기 두 번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전기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이 후기평가를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최종평가점수 산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최종평가점수 = $\text{Max}[0.5 \times \text{전기평가점수} + 0.5 \times \text{후기평가점수}, 0.2 \times \text{전기평가점수} + 0.8 \times \text{후기평가점수}]$

여기서 사용한 $\text{Max}[X, Y]$ 는 X와 Y 중 큰 값을 의미한다. 즉, 전기평가점수와 후기평가점수의 가중치를 50:50으로 하여 산정한 점수와 20:80으로 하여 산정한 점수 중 더 높은 것이 해당 기관의 최종평가점수이다.

<상 황>

4개 기관의 전기평가점수(100점 만점)는 다음과 같다.

기관	A	B	C	D
전기평가점수	60	70	90	80

4개 기관의 후기평가점수(100점 만점)는 모두 자연수이고, C기관의 후기평가점수는 70점이다. 최종평가점수를 통해 확인된 기관 순위는 1등부터 4등까지 A - B - D - C 순이며 동점인 기관은 없다.

<보 기>

ㄱ. A기관의 후기평가점수는 B기관의 후기평가점수보다 최소 3점 높다.
ㄴ. B기관의 후기평가점수는 83점일 수 있다.
ㄷ. A기관과 D기관의 후기평가점수 차이는 5점일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문 10.

문제 풀이 시간 : 문제 난이도 ☆☆☆☆☆

문제 인지

발문이나 제시된 자료 및 지문 등에서 핵심 키워드를 표시해보세요.

조건 이해

표시한 핵심 키워드 간의 관계를 정리해보세요.

이론 탐색

문제 푸는 데 필요한 이론 및 해당 이론의 내용을 간략히 적어보세요.

조건 적용

제시된 자료나 조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근거를 찾아보세요.

정답 도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1. 하루 질문

오늘 푼 문제들을 떠올리면서 다음 질문에 답해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는가?		1	2	3	4	5	6	7	8	9	10	계
문제 인지	① 발문 내용 꼼꼼하게 확인											
	② 제시된 자료 확인											
	③ 보기 또는 선지 확인											
조건 이해	④ 제시문 이해 포인트 숙지											
	⑤ 표·그림 이해 포인트 숙지											
	⑥ 수식·단서 이해 포인트 숙지											
이론 탐색	⑦ 문제에 필요한 이론 확인											
	⑧ 이론 내용 이해											
	⑨ 이론 적용 방법 습득											
조건 적용	⑩ 제시된 사례 알맞게 적용											
	⑪ 수치 정확하게 계산											
	⑫ 문제 풀이 방식 정리											
정답 도출	⑬ 정답 올바르게 체크											
	⑭ 선지형 문제 정답 찾기											
	⑮ 보기형 문제 정답 찾기											

[문제 인지]

- ① 발문을 통하여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실제 질문 내용, 핵심 정보나 단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였는가?
- ② 제시된 자료의 키워드를 잘 표시하였는가? 자료의 제목 및 항목을 확인하였는가? 주의사항 및 예외 조건 등을 잘 확인하였는가?
- ③ 각 지문의 확인 순서(쉬운 지문부터 확인 또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확인)를 미리 결정하였는가? 지문 내용 중 핵심 키워드를 잘 표시하였는가?

[조건 이해]

- ④ 제시문 이해 포인트(핵심 내용 파악, 주제 및 단락 간 관계 파악, 핵심 키워드 간 관계 파악)를 제대로 숙지하였는가?
- ⑤ 표 이해 포인트(표의 제목, 표의 단위 및 항목, 표에 대한 소개) 및 그림 이해 포인트(필요한 내용, 그림 설명, 문제 풀이를 위한 힌트)를 제대로 숙지하였는가?
- ⑥ 수식 이해 포인트(수식에 사용된 변수, 변수 간 관계, 수식 또는 수치 구조 변형) 및 단서 이해 포인트(‘단, 다만’ 등의 접속사, 예외 해당 여부, 예외의 예외 여부)를 제대로 숙지하였는가?

[이론 탐색]

- ⑦ 문제를 풀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이론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⑧ 문제를 풀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이론에 대하여 잘 이해하였는가?
- ⑨ 문제에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습득하였는가?

[조건 적용]

- ⑩ 제시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는가? 제시문과 제시된 사례 간의 관련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였는가? 사례의 주체 및 원칙이나 예외 여부를 올바르게 확인하였는가?
- ⑪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치를 올바르게 찾았는가? 답을 찾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단서 및 예외 여부는 올바르게 판단하였는가? 계산 방법을 제대로 적용하여 올바르게 계산하였는가?
- ⑫ 유사한 문제가 나올 때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본인만의 문제 풀이 방식을 잘 정리해두었는가?

[정답 도출]

- ⑬ ‘옳은/옳지 않은’에 주의하여 정답을 올바르게 체크하였는가?
- ⑭ 선지형 문제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는가?
- ⑮ 보기형 문제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는가?

2. 체크리스트

오늘 푼 문제들에 대하여 아래 질문에 답해보세요.

질문		그렇다	모르겠다	아니다
①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가 충분한 상태인가?				
②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틀린 문제	③ 원인을 이해하고 있는가?			
	④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가?			
	⑤ 해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⑥ 해법을 설명할 수 있는가?			
맞힌 문제	⑦ 해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⑧ 해법을 설명할 수 있는가?			

- ① 문제를 풀기 위한 주변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문제를 풀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갖추었는가? 문제를 풀 때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고 문제에만 집중하여 끝까지 잘 풀어냈는가?
- ② “하루 질문”을 통해 답변한 내용을 참고할 때, 오늘 푼 문제들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묻고 있는 내용에 올바르게 답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등을 잘 이해하였는가?
- ③ 틀린 문제의 경우, 어떤 원인 때문에 문제를 틀렸는지 그 원인을 이해하고 있는가?
- ④ 틀린 문제의 경우, 어떤 원인 때문에 문제를 틀렸는지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틀린 문제에서 자신이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가?
- ⑤ 틀린 문제의 경우, 올바르게 풀 수 있는 해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 ⑥ 틀린 문제의 경우, 올바르게 풀 수 있는 해법을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⑦ 맞힌 문제의 경우, 올바르게 풀 수 있는 해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 ⑧ 맞힌 문제의 경우, 올바르게 풀 수 있는 해법을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는가?

3. PSAT 정복 단계 자가 테스트

본인의 현재 PSAT 정복 단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판단해보세요.

	하루 질문 점수	PSAT 정복 단계	
지난 회차	점	모 - 아	모 - 모
		아 - 아	아 - 모
이번 회차	점	모 - 아	모 - 모
		아 - 아	아 - 모

자신의 현재 수준 및 개선 방향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서술해보세요.



프라임 법학원